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 장르의 문화계발 효과:

현실유사성 인식의 매개와 숙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나은경** · 김도연***

이 연구는 (1) 기존의 텔레비전 전체 시청량이나 TV 뉴스와 드라마 장르에 집중되어온 문화계발 효과연구의 관심을 전환하여 근래 늘어나고 있는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인 장르의 효과에 주목하고, (2) 텔레비전의 시청이 계발하는 '사회적 현실 인식과 태도' 가운데 일상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로서 숙명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며, (3) 이러한 확장적 계발효과와 추론 근거로 '텔레비전 내용의 현실유사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탐구했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고전적인 문화계발 효과이론이 주장하듯이 전체적인 TV 시청 총량은 숙명적 태도의 계발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했다. 텔레비전 시청 총량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이용은 수용자의 숙명적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계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집중해 왔던 뉴스(사실) 장르와 드라마(허구) 장르의 이용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시청의 이러한 계발효과는 텔레비전에 그려지는 내용이 수용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실제 현실과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리얼리티 텔레비전, 리얼리티 장르, 문화계발 효과, 현실유사성 인식, 숙명적 태도

1. 문제제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근래 국내외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에 리얼리티 형식을 혼합한 프로그램들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고, 다른 장르 프로그램에도 리얼리티 성격을 가미한 융합 장르가 주요한 경향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다큐 드라마 등의 혼종 장르까지 등장하여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 점유율과 영향력에 비해 양적으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고, 장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기보다는 단일 프로그램의 시청이나 특정 포맷 시청의 영향을 단발적으로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다(예: 김미라, 2005; 홍지아, 2009; 김수정, 2010; 이경숙, 조경진, 2010; 최성민, 2010; 최은경, 김승현, 2010)

지금까지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범죄 드라마나 병원 드라마, 그리고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를 다루는 뉴스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루어 왔다(Hill, 2004). 하지만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최근 들어서 범죄 드라마와 병원 드라마, 뉴스의 범주를 벗어나 포맷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확장되면서 광범위한 영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심지어 본래 보수적으로 짜여지는 프로그램 범주 유목에서조차 리얼리티 성격을 가미하거나 표방하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그램의 지배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케이블TV를 통해 해외 리얼리티 쇼를 접할 기회도

* 2010년도 국민대학교 신진교수 연구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eunniena@kookmin.ac.kr)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dohyeonk@kookmin.ac.kr)

일상화되고 있다.

‘리얼’을 표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드물어졌다고 할 정도로 텔레비전은 바야흐로 리얼리티의 흥수를 이루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을 장악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리얼리티 표방 오락/예능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KBS 2TV의 <1박2일>, MBC의 <무한도전>, <우리 결혼했어요>, 그리고 종영되었으나 유사한 형식으로 방영되었던 SBS의 <패밀리가 떴다> 등을 필두로, 오락 프로그램에 리얼리티 속성을 가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유현석, 2008; 이준, 2007; 리얼리티 프로그램..., 2008.5.14). 이들은 서구에서 개발되어 전파된 전통적인 사실적 리얼리티 포맷도 아니고 단순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다. 탈장르적이면서도 사실성과 허구성을 교묘히 뒤섞고 있는 혼종(hybrid) 형식의 리얼리티 쇼가 오락성을 가미하며 한국형으로 변형 정착된 형태이다(김수경, 2008). “<무한도전>은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격을 차츰 더하며 ‘한국형 리얼 버라이어티 쇼’로 진화해왔다”(강명석, 2006.10.26). “오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리얼리티 요소가 들어가야 뜬다’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을 정도”(일요시사, 2008.7.10일자)이며, 실제로 케이블TV의 한 채널을 통해서는 ‘리얼 다큐 드라마’라는 혼종 형식의 <막 돼먹은 영애씨> 같은 프로그램이 2010년 말에 8번째의 시즌을 맞을 정도로 장기간 방송 중에 있다.

이렇듯 다분히 한국적인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의 시청은 수용자들에게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 시청과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경험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이 시청자들의 사회적 현실 인식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해 왔다. 세계관, 신념체계, 그리고 가치관의 형성에 텔레비전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문화계발 효과 연구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연구들과 궤를 같이 한다. 가령, 텔레비전에서 여성들의 과도하게 마른 체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이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은 이로 인해 정상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자기 몸에 대한 불만족을 계발하게 된다고(Hargreaves & Tiggemann, 2003), 텔레비전에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인종과 계급(동성애자, 흑인, 아시아인, 성 역할 등)이 등장할 때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계발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문화계발 연구의 새로운 경향 가운데는 구체적인 장르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의 현실인식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가령, 텔레비전의 허구적 드라마가 현실세계의 정치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결정 방향을 생각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Mutz & Nir, 2010). 이러한 경향은 문화계발 연구에서 정치 뉴스 프로그램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정치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때임을 시사한다. 장르가 다양해지고 리얼리티 요소가 타 장르의 곳곳에 침투하면서, 사실과 허구, 픽션과 논픽션 사이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늘고 있는 근래의 경향을 볼 때, 구체적인 장르의 차이에 따라 문화계발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전체 시청량이나 TV 뉴스와 드라마 장르에 집중되어온 문화계발 효과연구의 관심을 확장하여, 최근 텔레비전의 (특히 한국적인) 제작현실을 반영하여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장르의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로, 텔레비전의 시청이 계발하는 ‘사회적 현실 인식과 태도’ 대상에 대하여도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에 관한 비판적인 문화연구에서 제시해온 수용자의 해석과

담론분석 결과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범죄 관련 현실인식에 집중하는 논의에서 일상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의 계발로 효과의 개념을 넓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장르가 이와 같은 확장적 계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추론의 근거를 ‘텔레비전 내용의 현실유사성 인식’에서 찾음으로써, 문화계발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매개효과와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개념의 비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정의하려면 이런 범주를 구성하는 속성(attributes)을 구체화(identify)하고 어떤 프로그램(쇼)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가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점점 더 양적으로 늘어나고 속성상 다양해짐에 따라 더욱 어려운 것이 되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뉴스, 토크 쇼, 다큐멘터리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는가 하면(Meng & Lugalambi, 2003; Potter et al., 1997), 또 다른 학자들은 논픽션 프로그램의 형태와는 구분되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예컨대, 나비 등(Nabi et al., 2003)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5 가지 구체적 속성을 ① 스크립트 없이 촬영되는가, ② 내러티브가 있는가, ③ 의도적인 오락용으로 만들어지는가, ④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⑤ 세트장이 아닌 실제 현실 환경에서 촬영되는가 등으로 열거하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이러한 형식적이거나 내용적인 일련의 구체적 속성들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프로그램들, 가령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경우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연구하기도 한다(Hall, 2006).

특히 우리나라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진화해온 방식을 생각할 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장르의 다양한 특성을 아우르며 오락적 요소에 크게 치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범주로서의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래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많은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바 있는 <우리 결혼했어요>(최은경, 김승현, 2010; 홍숙영, 2009), <무한도전>, <1박2일>, <패밀리가 떴다>(김미라, 2008; 옥민혜, 박동숙, 2010; 이경숙, 조경진, 2010; 최성민, 2010)와 같은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들이 엄밀한 의미의 ‘리얼리티 장르’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사전 대본의 부재’를 리얼리티 장르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들은 마치 대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편집하고 촬영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대본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리얼리티 장르’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우선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그 이전까지의 오락 프로그램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리얼리티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형식적인 리얼리티 속성들이 새롭게 불러일으킬 효과가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새롭게 등장한 리얼리티 장르의 오락 프로그램들을 초기의 ‘재연’에만 집중했던 ‘고전적인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구별하여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즉, 모든 기준에서 전통적인 리얼리티 장르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내용이나 형식 측면 중 어느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리얼리티 표방 텔레비전 장르’로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형식적,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현실적 요소를 강조하는 속성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면,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은 형식적 요소나 내용적 요소 중 일부에서 현실성을 강조하지만 허구적 요소도 배제되지 않은 프로그램 장르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각 장르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장르별 고유한 공식과 관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크게 프로그램의 구조(structure)적 측면과 내용(content)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시청자에게도 차별화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Grabe & Drew, 2007). 텔레비전 장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주로 형식적인 제작방법인 카메라 움직임과 편집기법 등의 차이를 가리키고,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픽션 장르와 논픽션 장르가 범죄 소재를 동일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이야기 전개나 결말의 관점 등에서의 차이를 뜻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살펴보면, 한국적 “리얼리티 표방”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작 기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하나는, ‘내용’의 현실성(덜 정제된 언어들과 소재의 사용)을 ‘형식’의 허구성(재연이나 드라마 형태)으로 담아내는 것, 다른 하나는, ‘내용’의 허구성(오락 프로그램의 사전 대본 존재, 배우 실습생을 실제 인물인 것으로 위장)을 ‘형식’의 현실성(야외 촬영, 카메라 기법, 편집 기술, 자연스러운 대화방식)으로 위어내는 것이다.¹⁾ 이러한 기제가 오락프로그램의 몰입도와 즐거움을 높여 프로그램 시청률을 견인한다고 하겠다. 이때 리얼리티 표방 오락 프로그램의 내용 현실성 또는 형식 현실성을 통해 향상된 현실유사성은 리얼리티를 표방하지 않는 기존의 오락 프로그램들에 비해 사회적 현실에 대한 수용자의 사고와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장르별 계발 효과의 차이: 리얼리티 장르의 계발 효과를 중심으로

리얼리티 장르의 개념은 타 장르와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호킨스와 핑그리(Hawkins & Pingree, 1981)는 문화계발 연구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나로 합하여 단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다루기보다,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르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추정은 각 장르마다 고유하게 사용되는 공식이나 관습에 근거한다. 가령, 범죄수사물의 영웅주의, 코미디물의 오해와 당황, 게임쇼의 어리석음과 우연, 사건 중심적인 뉴스 등은 모두 세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계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지형의 변화이다. 문화계발 이론이 소개된 1970년대는 지금에 비해 프로그램의 유형과 종류가 훨씬 적고 단순했기 때문에 당시의 수용자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아무리 선택적으로 고른다 하더라도 대개 비슷한 유형의 내용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프로그램의 포맷과 장르가 다양화되고 혼종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그러한 가정이 여전히 유효할지는 의문이다(Lee et al., 2010). 심지어 문화계발

1) 전자의 사례로는 <막 돼먹은 영애씨>, 후자의 사례로는 <1박2일>, <우리 결혼했어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론에 관한 초기 20년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할 때는 장르 구분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던 연구자들조차(Morgan & Shanahan, 1997) 이후 십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문화계발 연구에서 장르 연구의 경향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Morgan & Shanahan, 2010).

장르별 문화계발 효과 연구는 텔레비전 픽션(드라마)과 논픽션(뉴스 범죄 보도) 장르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다. 실제로 문화계발 효과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프로그램 장르는 드라마였고 그 다음이 뉴스였다(Eschholz et al., 2003; Grabe & Drew, 2007; Lee & Neiderdeppe, 2010; Romer et al., 2003). 이와 함께 문화계발 효과 연구에서 구체적인 장르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Chiricos et al., 1997, 2000; Cohen & Weimann, 2000; Eschholz et al., 2003; Heath & Petraitis, 1987; O'Keefe & Reid-Nash, 1987; Weitzer & Kubrin, 2004). 구체적으로, 토크쇼(Glynn et al., 2007; Rossler & Brosius, 2001; Woo & Dominick, 2003), 일반인의 화장법, 옷차림을 고쳐주고, 다이어트, 심지어 성형수술을 동원해 외모의 변신을 만들어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류의 리얼리티 쇼(Kubic & Chory, 2007; Nabi, 2009),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Ferris et al., 2007; 김미라, 2005), 심지어 <그레이 아나토미>와 같은 특정한 드라마(Quick, 2009), 뉴스의 문화계발 영향 연구(Romer et al., 2003) 등 다양한 장르 각각의 문화계발 효과가 연구되어왔다. 또는 장르 간(뉴스, 드라마, 리얼리티 쇼) 문화계발 효과를 비교하기도 했고(Grabe & Drew, 2007), 구체적인 뉴스 장르 이용의 효과가 전반적인 텔레비전 시청 총량과 비교해 독립적으로 계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한 최근 연구도 있다(Lee & Niederdeppe, 2010; Niederdeppe et al., 2010). 이들은 문화계발 연구에서 개별 프로그램 장르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프로그램 장르의 구체적 기술적 속성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카메라 움직임과 편집 기술들의 차이로 인해 시청자가 프로그램 장르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수용자의 정보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Bilandzic & Rossler, 2004; Grabe et al., 2003; Shapiro & Lang, 1991). 이러한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차이 외에 비슷한 소재(예: 범죄)를 다루더라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가 다르면 내용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다(Grabe, 1999; Potter & Ware, 1987; Eschholz et al., 2002; Oliver, 1994). 실제로 장르 간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범죄 드라마의 시청이 뉴스 시청에 비해 범죄에 대한 공포 계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Holbert et al., 2004; O'Keefe & Reid-Nash, 1987).

이런 맥락에서 문화계발 효과의 최근 연구들은 전통적인 문화계발 효과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주 영향 요인인 텔레비전 시청 총량의 효과만 살피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시청 프로그램 장르의 차이에 따라 영향에도 차이가 있는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Custers and Van den, 2011; Lee et al., 2010). 장르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검증한 연구 중 일부를 소개하면, 범죄 드라마는 범죄 보도 뉴스에 비해 공포나 방어 행위(충기 소지, 사형제 지지)에 대한 계발 효과가 약했으며, 경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공포와 방어 행위에 대한 예측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Eschholtz et al., 2003; Grabe & Drew, 2007; Holbert et al., 2004; O'Keefe, 1984; O'Keefe & Reid-Nash, 1987). 에슈홀츠와 동료들(Eschholz et al., 2002)의 연구에서도 경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범죄 인식을 구성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리얼리티 장르의 시청은 수용자가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현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장르별 영향의 차이를 연구한 사례 중 그레이브 등(Grabe et al., 2007)은 사실적 장르(뉴스나 리얼리티 프로그램)가 허구적 장르(드라마)에 비해 계발 효과가 크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한국형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은 서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에 비해 대체로 오락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허구성이 많이 섞여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지 ‘현실’에 기반을 둔다는 것만으로 한국형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이, 사실보도를 주로 하는 뉴스 시청과 동일한 효과를 내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 사실적 장르인 뉴스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드라마와 같은 허구적 장르보다 범죄 관련 문화계발(범죄율 인식, 범죄에 대한 공포, 예방대책 강구 등)에 더 큰 영향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들은(Eschholtz et al., 2003; Grabe & Drew, 2007) 뉴스 장르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비슷한 사실적 장르로 묶어 허구 장르와 대비시켰다는 점에서 공헌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뉴스 장르와 리얼리티 장르 간의 중요한 차이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두 장르의 영향이 동일할 것이라며 한 데 묶어 취급해버린 한계를 지닌다.

사실과 허구를 뒤섞은 혼종 장르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맷의 경향을 고려할 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허구와 대비되는 사실 장르에 포괄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특히 리얼리티 장르가 미국에서처럼 사실 재현에 큰 비중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오락적이고 가상적인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한국적 리얼리티 표방 TV 오락 프로그램의 영향은 차별적일 수 있다. 범죄 영역에서 서구 포맷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범죄 인식은 물론 공포심과 예방행동 촉구와 법제 강화 지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듯이(Holbert et al., 2004; Eschholz et al., 2002), 리얼리티 프로그램 장르는 문화계발에 중대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유사한 사실적 장르라 해도 뉴스 장르의 효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더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Custers & Van den Bulck, 2011).

3) 숙명적 태도와 계발 효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사회적 현실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문화연구자들이 텍스트 분석, 담론 분석을 통해 연구한 바 있다(박지훈, 류경화, 2009; 최은경, 김승현, 2010; 홍지아, 2009). 이 연구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한 이데올로기 확산의 영향과 수용자의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해석의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은 사건 재현 양식이나 드라마 양식을 이용하여 가정, 결혼, 친구, 연인, 범죄, 폭력 등의 소재를 자주 다루고 있으며, 텔레비전 시청자는 이를 통해 현실인식에 영향을 받는다(Woo & Dominick, 2003). 예를 들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사회적 고정관념과 성 역할 개념을 고정시키거나 가치관을 확대 재생산하고, 단순하고 정형화된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등장시켜 순응주의를 복돋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과 연애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강조되고, 사회적 질서 유지의 필요성과 경향도 부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주연, 2005). 한편, 연예인이 자주 등장하면서 연예인(스타)들의 일반인화에 만족하는 한국적 평등주의 의식이 발현되기도 하고(김수경, 2008), 이와는 상대적으로 일반인도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는 판타지가 녹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이들은 기존의 드라마 담론분석 결과들과 많은 부분 공통된다.

이에 대해 한 대중문화 평론가는 한국적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에서 일반인의 삶이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리고, 동시에 일반인들이 스타가 되는 식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붙여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리얼리티쇼가 제작자의 윤리 대신 출연자의 경험과 학습을 자기

정당화의 논리로 소환한다는 점이다”(차우진, 2011.3.4). 많은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참여적 형식은 일반인이 스스로 변화하고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과 판타지”(차우진, 2011)를 양산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Ouellette & Hay, 2008; 김수정, 2010), “텔레비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유명인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Reiss & Wiltz, 2004, p.374). 하지만 그것이 환상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한 판타지적인 가능성에 대한 희박한 희망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현실에 대해 더욱 체념적인 태도를 내면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리얼리티 장르의 프로그램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제 인물인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처하는지를 (...) 속속들이 다룬다”(김수정, 2010, p.18). 또는 상세한 지침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보이는 내용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김수정, 2010). 리얼리티 장르는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그저 방관자적으로 구경하고 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경향을 높일 수 있고, 여타의 장르에 비해 더욱 일상적이고 현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적인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은 서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과는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얼’을 표방한다지만, 드라마보다 조금 덜 연출된 상황일 뿐 계산된 설정 속에 연예인들이 움직이는 것은 기존의 오락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김수경, 2008). 서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일반인이 신데렐라로 등극하는 탄생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한국의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은 오히려 스타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소박하고 평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형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은 “서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달리 극단적인 관음성이나 음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으며 “사회의 도덕적 규범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특성이 있고 “심지어 기성의 사회적 가치관을 강화하는 성격까지 엿보인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박주연, 2005, pp.44-45). 한국적 평등주의 의식(송호근, 2006)은 한국의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에 일반인보다는 연예인이 등장하는 경향을 부추겼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은 역으로 다시 한국적 평등주의를 강화시킴으로써 시청자들 자신의 현실 삶에 대한 불만족 심리를 고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계층 갈등이 제시되고 중국에 해소되는 드라마나 시트콤과 달리 리얼리티 쇼는 갈등이 제시될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끝나버린다”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오히려 계층이동에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김수경, 2008에서 재인용). 더구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은 여타 장르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수용자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텔레비전 내용과 자기 현실을 비교하고 현실에 대해 불만족하게 느끼는 경향과 그 여파는 더 클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에 의해 계발되는 대상으로는 범죄 인식과 범죄에 대한 공포 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영향변인들이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물질주의적 가치 및 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계발(Good, 2007, 2009; Shrum, 1999; Shrum et al., 2005), 동성애에 대한 태도(Calzo & Ward, 2009; Rossler & Brosius, 2001),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및 연애관계에 대한 태도(Ferris et al., 2007; Ward, 2002a;

김미라, 2005), 결혼생활과 가족에 대한 인식(Ex et al., 2002; Segrin & Nabi, 2002; Woo & Dominick, 2003) 등이 연구되었다.

전통적인 문화계발 효과이론에서 말하는 “사악한 세상(mean world)” 증후는 실제로 범죄와 그 피해의식이라는 협소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등의 현실에 다차원적인 의미로 확장이 가능하다(Lee et al., 2010; Niederdeppe et al., 2010). 또한 텔레비전 시청으로 인한 문화계발 효과를 통해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개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근래의 변화하는 텔레비전 장르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발효과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텔레비전 시청의 계발효과에 연관되는 영역으로 최근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 대처 능력 인식(Custers et al., 2011), 자기효능감 인식(Ozer & Bandura, 1990), 통제 소재 인식(locus of control) (Bahk, 2001) 등의 주제들이다. 특히 건강 관련 영역에서 텔레비전의 이용이 효능감이나 자기통제감과 대처 능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Bahk, 2001; Custers et al., 2011; Lee et al., 2010; Niederdeppe et al., 2010). 가령, 암 예방에 관한 숙명적 태도가 텔레비전 총 시청량이나 텔레비전 뉴스 시청 정도에 의해 계발된다는 연구(Niederdeppe et al., 2010; Lee et al., 2010)나, 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처 능력 인식과 텔레비전 시청의 관계에 관한 연구(Custers et al., 2011)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텔레비전 시청이 자신의 현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판타지를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현실에서 경험하는 한계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숙명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에도 계발효과를 미칠 수 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숙명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낮고 현실에서 무언가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더 위험한 행위들에 관여할 가능성은 높은 반면 변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행위들에는 관여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Lee et al., 2010; Zimbardo & Boyd, 2008). 텔레비전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일반인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크게 다르지 않고, 희망적이기보다 더 부정적인 내용(예컨대, 결혼이나 연애관계에서의 부정과 불신, 지나치게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의 변화없음 등)을 보면서 삶에 대해 숙명적이고 체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현실유사성 인식의 매개 효과

문화계발 효과이론에서 연구해온 수용자 속성 변인 가운데 ‘사실성 인식(perceived realism)’은 시청한 텔레비전의 내용이 얼마나 ‘진짜(real)’라고 믿는가, 즉 픽션(덜 사실적)과 논픽션(더 사실적)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문제이다. 이는 주로 스토리(이야기 줄거리)가 주요한 유인으로 작용하는 재연드라마나 범죄 관련 드라마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곤 했다(Potter, 1986, 1988; O’Keefe, 1984; Oliver & Armstrong, 1995; Busselle & Greenberg, 2000; Busselle et al., 2004). 포터 등의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내용이 사실이라고(real) 생각한 시청자들은 그 내용이 허구(fictional)라고 생각한 시청자들보다 내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제시하였다(Potter, 1986, p.161).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의 사실성(actuality or factuality) 여부보다는 시청자가 텔레비전에 그려진 내용이 자신의 실제 삶의 경험과 얼마나 비슷하고 가깝다고 느끼는지의 유사성(similarity)이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 영향의 주요한 유인일 것이라 보았다(Austin et al., 1990; Dorr et al., 1990; Hall, 2003). 이에 ‘사실성 인식’과 분리되는 개념으로서의

‘현실유사성 인식’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코건과 맥스필드(Skogan & Maxfield, 1981)는 여성과 노인들이 범죄 관련 미디어 메시지에 더 쉽게 영향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 근거는 범죄에 희생될 가능성에 대한 취약함(vulnerability)을 스스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한 입장의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기 쉽고 그로 인해 미디어의 범죄 관련 내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텔레비전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공포를 느낀다는 유사성(affinity) 가설도 입증된 바 있다(Chiricos et al., 1997). 이러한 사실성 혹은 유사성 인식은 지리적 근접성과 심리적 근접성으로 나누어 연구되기도 했고(Bilandzic, 2006; Eschholz et al., 2003), 개인적인 위험 인식이나 대처 능력 인식 등의 요인들이 매개변인으로 고려되기도 했다(Custers & Van den Bulck, 2011). 요컨대, 텔레비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신의 현실은 물론 주변사람들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수용자일수록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 시청보다도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시청의 현실구성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요약해보면, 최근의 문화계발 연구 영역은 (1) 구체적인 장르별 효과의 차이 연구, 그리고 (2) 다양한 매개변인들의 가능성 탐구 등이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전통적 문화계발 효과 - TV 시청 총량의 효과)

텔레비전 시청 총량은 숙명적 삶의 태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장르별 문화계발 효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이용 장르(뉴스, 드라마,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자의 숙명적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의 이용은 다른 장르들(뉴스, 드라마)을 통제된 상황에서도 숙명적 삶의 태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현실유사성 인식의 매개 효과)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의 시청이 숙명적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텔레비전의 현실유사성 인식의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전체적인 텔레비전 시청량이 증가할수록 숙명적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이용 장르에 따라 숙명적 태도 계발에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의 이용은 뉴스와 드라마 장르에 대해 독립적인 계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1>: 전체적인 TV 시청량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은 숙명적 태도 계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전체적인 TV 시청량과 함께,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논의되는 다른 텔레비전 장르들(뉴스, 드라마)의 시청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은 숙명적 태도 계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의 이용이 숙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인 텔레비전의 내용에 대해 현실유사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방법

1) 표본 선정, 조사 방법 및 시기, 표본의 특성

이 연구의 모집단은 만 19세 이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거주자들이며, 2008년 12월자 주민등록통계를 이용한 성별, 연령별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하여 85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 방법으로 2009년 7월 8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표본 특성은, 남자 48.6% 여자 51.4%이며, 연령별로는 20대 21.2%, 30대 24.2%, 40대 23.2%, 50대 15.6%, 60대 이상 15.8%으로 구성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5.9%, 대재 이상이 44.1%였다. 소득 수준(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4.5%, 200~300만원이 23.3%, 300~400만원은 30.3%, 400~500만원은 20.7%, 500만원 이상은 11.3%였다.

2) 측정 변인의 내용

(1) 전체적인 텔레비전 시청량

전통적인 문화계발 연구에서 중심변인으로 간주되는 ‘텔레비전의 전체 시청량’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 이용자들의 평일과 주말의 텔레비전 시청, 그리고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채널의 시청을 구분해 측정한 후 모두 더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을 30분 단위로 질문한 뒤, 평일과 주말을 합산한 하루 평균 매체 이용량으로 계산하였다. 지상파 텔레비전의 시청에 대해서는 (1)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용시간 총량을 보기에서 표시하게 함), (2) 주말(휴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질문하였고, 케이블/위성 방송의 시청에 대해서는 (3)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과 (4) 주말(휴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질문했다. 각각의 항목은 30분 단위마다 1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게 하였으며, 이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을 구해 ‘텔레비전 전체 시청량’을 구했다(M=6.16,

SD=2.84, 최소값=1, 최대값=25: 1은 0분 시청, Cronbach's Alpha=.72).

(2)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시청 정도

단순히 ‘뉴스 프로그램’ 시청을 묻는 방식보다 더 정확한 시청 정도를 구하기 위해 지상파 및 케이블 각 채널별 구체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였는지를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볼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다음 각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지”를 물어 텔레비전 뉴스 시청 빈도를 측정하였다. 즉, (1) KBS1 9시 뉴스 (KBS 뉴스 9), (2) KBS2 8시 뉴스 (KBS 8 뉴스타임), (3) MBC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4) SBS 8시 뉴스 (SBS 8 뉴스), (5) YTN 뉴스 프로그램, (6) MBN 뉴스 프로그램, 이상의 6개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보지 않았다’를 1로, ‘매일(또는 7번 이상) 보았다’를 5로 하는 리커트형 척도에 답하게 하여 6개 항목의 평균을 구했다(M=2.12, SD= .70, Cronbach's Alpha= .67).

(3) 텔레비전 드라마 프로그램 시청 정도

지상파 방송사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재방송되는 근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 경향을 고려하여, 지상파 채널에서의 드라마 시청과 케이블/ 위성 채널에서의 드라마 시청을 개별적으로 질문하여 측정한 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으로 통합하였다. 즉 (1) 지상파 TV 국내 드라마와 (2) 케이블/ 위성 TV의 지상파 재방송 국내 드라마 각각에 대해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볼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지”의 빈도를 물었다. ‘전혀 안 봤다’를 1점, ‘매일(또는 7번 이상)’을 5점으로 하는 리커트형 척도에 대한 두 항목의 응답치에 대한 평균을 구했다 (M=2.37, SD=1.05; $r=.48$, $p<.001$).

(4)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시청 정도

이 연구는 서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과 차이가 있는 한국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므로, 조사기간 당시의 텔레비전 편성표와 시청률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리얼리티 표방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였다. 최근에는 케이블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많고,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송하는 경우가 많은 경향도 고려했다. 이에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각 방송사의 15개 유사 프로그램들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²⁾ 각각의 개별 시청 정도를, ‘전혀 보지 않는다’와 ‘조금이라도 본다’로 구분하여, 조금이라도 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의 시청 지수(index)를 구성하였다(M=5.74, SD=2.80).³⁾

-
- 2) 조사기간 당시의 TV 편성표를 참조하여 많은 시간대를 차지하고 방송/재방송 편성되거나 시청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들을 선택한 결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 프로그램들의 이용 정도에 관해 질문하였다. <1박2일 (KBS)>, <우리 결혼했어요 (MBC)>, <패밀리가 떴다 (SBS)>, <무한도전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MBC)>, <막 돼먹은 영애씨 (tvN)>, <심령술루션.엑소시스트 (tvN)>, <타로 라이브 (리빙 TV)>, <리얼 엑소시스트 (Q채널)>, <점(占)점(占) 다가와 (YTN스타)>, <고스트 스팟 (코미디 TV)>, <악녀일기 (울리브 TV)>, <연애불변의 법칙 (울리브 TV)>, <스캔들 2.0 (tvN)>, <리얼스토리쇼 (tvN)>.
- 3) 이 프로그램들에는 버라이어티쇼, 재현 드라마, 다큐드라마 등 다양한 포맷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포맷을 좀 더 세분화할 경우 각 포맷별로 후시 효과에 차이가 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기에, 포맷별로 더 세분화된 분석을 추가해본 결과, 일단 이 연구에 선택된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들은 포맷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5) 속명적 태도

한국형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과 자기효능감과 통제 소재 인식 등과 관련한 문화계발 효과연구들을 참조하여(박주연, 2005; 김수경, 2008; Bahk, 2001; Custers et al., 2011; Lee et al., 2010; Zimbardo et al., 2008) 수용자의 속명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운명이나 팔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요즘 폭력과 범죄가 많아서 생활하기 좋지 않다”, “성공하려면 자기실력보다 집안배경과 인맥, 돈이 중요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사회는 구조적으로 나아지기 힘들다”의 4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에 1점,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에 5점인 리커트형 척도에 답한 점수들의 평균을 구했다($M=3.34$, $SD=.55$, Cronbach's $\text{Alpha}=.54$).

(6) 텔레비전 현실유사성 인식

뷔셀(Busselle, 2001)의 ‘사실성 인식(perceived realism)’ 측정을 위한 항목들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특히 텔레비전에 표상된 세계가 나의 실생활과 내 주위 사람들의 실생활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인식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즉 “텔레비전에 그려지는 인간관계는 나의 실제 현실과 많이 비슷하다”, “텔레비전에 그려지는 인간관계는 내 주의 사람들의 실제 현실과 많이 비슷하다”, “텔레비전에 그려지는 연인관계나 결혼생활은 나의 실제 현실과 많이 비슷하다”, “텔레비전에 그려지는 연인관계나 결혼생활은 내 주위 사람들의 실제 현실과 많이 비슷하다”, “텔레비전에 그려지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텔레비전에 그려지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실제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와 같은 6개의 문항 각각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여 평균을 구했다($M=2.73$, $SD=.77$, Cronbach's $\text{Alpha}=.91$).

5.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텔레비전 시청 패턴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문화계발 효과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는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고 해서 텔레비전에 그려진 내용을 현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커지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r=.02$, $n.s$). 그리고 텔레비전 전체 시청량과 드라마 시청량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r=.47$, $p<.001$) 두 변인이 현실유사성 인식과는 매우 다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도 중요하다. 텔레비전 시청량과 현실유사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드라마 시청을 많이 할수록 현실유사성 인식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이다($r=.15, p<.001$). 이러한 점에서 문화계발 효과 연구를 할 때 단순히 텔레비전 시청 총량만이 아닌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의 이용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텔레비전 시청량이 직접적으로 텔레비전 내용에 대한 현실유사성 인식과 연관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텔레비전에 그려진 내용이 자신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사람들의 숙명적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r=.16, p<.001$),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텔레비전의 숙명적 태도 계발효과 연구에서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관계 (N=800)

	TV 시청량	뉴스 시청	드라마 시청	리얼리티 시청	숙명적 태도
뉴스 시청	.22***	-	-	-	-
드라마 시청	.47***	.31***	-	-	-
리얼리티 시청	.26***	.29***	.33***	-	-
숙명적 태도	.11***	.09**	.10**	.11***	-
현실유사성	.02	.14***	.15***	.13***	.16***

*** $p < .001$ ** $p < .01$ * $p < .05$
 (성별, 연령, 교육, 소득 통제)

2) 텔레비전 시청량과 뉴스·드라마·리얼리티 장르별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텔레비전 시청량과 함께 개별 텔레비전 장르별 시청이 이용자의 숙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장르 이용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연구가설 1>은 검증되었다($\beta=.12, p<.001$). 전통적인 문화계발 이론에서 주장해 온 바와 같이, 텔레비전 시청 패턴과 큰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던 인구학적 주요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텔레비전 시청 총량은 이용자의 숙명적 태도를 계발하는 효과를 보였다. 텔레비전 시청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이 독립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1> 역시 검증되었다($\beta=.09, p<.01$). <표 2>에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텔레비전 시청량은 종속변인에 대하여 여전히 강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으며,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은 그와는 독립적으로 숙명적 태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문화계발 연구의 핵심적 영향요인이었던 텔레비전의 전체적인 시청 총량뿐 아니라 많은 후속연구들이 중요하게 주목해온 구체적인 장르들인 드라마와 뉴스의 시청을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도,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숙명적 태도를 계발하는 데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2>도 검증되었다($\beta=.07, p<.05$). 이러한 결과는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 장르가 단순히 사실과 허구의 혼종 형태 이상의 중요한 영향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얼리티 표방 오락 프로그램의 어떠한 속성이 기타 유사 장르들과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개변인의 종류와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 통제변인을 고려한, 속명적 태도를 예측하는 OLS 회귀분석 (N=800) 4)

	1단계 (TV 시청 총량)	2단계 (리얼리티 프로그램)	3단계 (뉴스, 드라마)	4단계 (장르별 비교)
인구학적 통제변인				
성별(남=1,여=2)	.07*	.07*	.06+	.06+
연령	.04	.03	.02	.04
교육 수준	-.10**	-.09*	-.10**	-.09*
소득 수준	.03	.03	.03	.02
관심 독립변인				
TV 시청 총량	.12***	.09**	.08**	.07*
뉴스 시청			.06+	.05
드라마 시청			.05	.03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		.09**		.07*
R-squared	.043	.050	.049	.053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표 안의 숫자들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이 연구의 가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뉴스 장르 이용과 드라마 장르 이용 정도가 속명적 태도 계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문화계발 연구에서 이용 장르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사실적 장르라 할 수 있는 뉴스의 이용은 텔레비전 전체 이용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유의수준($p < .10$)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beta = .06$). 반면, 허구 장르라 할 수 있는 드라마 이용은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3) 텔레비전 현실유사성 인식의 매개 효과

사회과학 연구에서 변인 간의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완전 매개보다는 부분 매개의 형태를 보인다. 부분 매개 모형에서의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3단계 과정을 통한 검증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1차로 ‘X(독립변인) → Y(종속변인)’ 영향을 살피는 회귀분석을 행한 후, 2차로 ‘M(매개변인) → Y(종속변인)’ 영향을 살피는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더불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Baron & Kenny, 1986; Preacher & Hayes, 2004).⁵⁾

4) <표 2>에 제시된 모든 회귀분석 결과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토를 거쳤다. 모든 예측변인들의 VIF 값은 2보다 작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과 관련해 다중공선성에 의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참조: Jacobs and Carmichael, 2002).

5) 부분 매개 모형의 경우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하나의 회귀분석 모형 안에 함께 투입하는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개 효과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소벨의 검증(sobel's test) 공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한 경우에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공식을 이용한 대체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다중공선성의 문제없이 이 3단계 과정을 거쳐 ‘독립변인→매개변인→종속변인’의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했다(Baron & Kenny, 1986; Preacher & Hayes, 2004).

그 결과, 우선, ‘독립변인(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이용) → 종속변인(숙명적 태도)’ 모형에서의 회귀 계수가 유의미하였고 ($\beta=.07, p<.05$), 다음으로, ‘독립변인 → 매개변인(현실유사성)’ 모형에서의 회귀 계수 역시 유의미하였다 ($\beta=.09, p<.05$). 이어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매개변인의 영향만 유의미하며($\beta=.15, p<.001$) 독립변인의 영향은 회귀계수의 크기가 작아질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6, n.s$). 여기서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세 변인 간의 관계가 완전 매개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숙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텔레비전의 현실유사성 인식의 정도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관계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6. 결론 및 논의

횡단면적인(cross-section) 데이터 분석으로는 인과성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계발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이며 습관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효과 증명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계발 효과 연구들이 시도되어 이론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새로운 영역으로 계발효과의 개념을 확장하는 연구와 개별 프로그램 장르별 계발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 연구도 그 가능성을 살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결과, 고전적인 문화계발 효과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전체적인 텔레비전 시청 총량은 숙명적 태도의 계발에도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했다. 텔레비전 시청 총량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의 이용은 수용자의 숙명적 태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계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집중해 왔던 뉴스(사실) 장르와 드라마(허구) 장르의 이용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관계는 텔레비전에서 그려지는 내용이 얼마나 수용자 자신의 삶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느끼는가의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장르를 불문하고 전반적인 텔레비전의 내용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실제 현실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시청자일수록 특히 리얼리티 표방 장르의 문화계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사실적 장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전 뉴스와 허구적 장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이 둘과 대비되는 리얼리티 표방 오락 프로그램 장르 간의 상대적인 문화계발 효과를 밝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문화계발효과에 관한 연구는 대개 텔레비전 픽션(범죄 드라마)과 논픽션(뉴스 범죄 보도) 장르의 효과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다(Eschholz et al., 2003).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별 계발 효과 차이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별 시청에 따른 상대적인 계발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기보다는 텔레비전 일반 시청량과 단일 장르의 효과만을 비교하거나 특정 장르의 개별적인 효과만을 단일하게 살펴보는 정도에 그쳐왔다(Lee & Niederdeppe, 2010). 이에 이 연구는 텔레비전 시청이 수용자의 태도를 계발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개별 장르 효과를 따로 살피는 것에 더해 장르 간의 상대적인 계발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텔레비전 시청이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구성이 기존의 문화계발

효과에서 논하는 영역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구성에 관한 기존의 비판적인 문화연구들이 축적해온 연구결과와 추론들을 실증연구 전통의 문화계발 이론에 접목하여 경험적으로 증명해내고자 하는 시도였다. 문화계발 효과연구 영역에서도 텔레비전 시청이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태도 영역은 특정한 주제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연구돼온 경향이 있다. 특히 문화계발 효과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개념들은 1차적으로 범죄 빈도 인식이나 범죄의 희생양 관련 위험 인식, 그리고 공포감 등이 대부분이었다. 나아가, 2차적으로는 법과 질서에 대한 태도와 특정 정책 지지로 이어지는 행동적 측면 등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가치관의 계발(물질주의 가치, 생활만족도, 타인 불신) 등과 같은 보다 폭넓은 세상에 대한 인식이나 일상적 태도에 대한 문화계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이 연구는 체념, 순응주의와 같은 가치관 관련 태도의 계발에 미치는 텔레비전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문화계발의 이론적 확장을 시도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종속변인의 확장은 고전적인 문화계발 효과의 연구 소재인 범죄 관련 주제를 넘어서, 로맨스, 인간관계, 성 역할, 인종 편견, 직장생활 인식 및 태도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담론분석 연구나 문화연구에서 추정적으로 밝혀온 이데올로기 계발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프로그램 장르별 계발효과에 차이가 있고, 특히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의 영향이 전통적으로 인정돼온 뉴스나 드라마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텔레비전에 그려진 내용이 자신과 주변의 실생활과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인 ‘텔레비전 내용의 현실유사성’ 인식의 정도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별 문화계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여러 장르들 중에서도 특히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시청이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 이용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 인식과 태도 계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의 근원을 현실유사성 인식에서 찾아봄으로써 문화계발 효과에 대한 특정 장르의 고유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문화계발 연구에서 다양한 매개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녔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의 이론적 확장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문화계발 효과의 개념 확장이 이론으로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리적인 지지가 필요하기에 유사한 맥락의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의 주요한 변인 중 하나인 숙명적 태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54) 개념 측정의 타당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 연구의 주요한 변인 중 하나인 숙명적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척도 개발과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석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들에는 버라이어티쇼, 재현 드라마, 다큐드라마 등 다양한 포맷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포맷을 좀더 세분화할 경우 각 포맷별로 혹시 효과에 차이가 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의 과정에서 포맷별로 더 세분화된 분석을 추가해본 결과, 일단 이 연구에 선택된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들은 포맷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아 포맷별 구분 없이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이용으로 묶어 최종 분석에 이용했다. 그러나 자료 조사의 시점이 2008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후에 수많은 서바이벌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크게 유행·확산하는 등 리얼리티 장르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변화가 생겼으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리얼리티 장르 중에서도 포맷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의 다양한 장르들은 서로 상충하기보다는 상호 강화하기 때문에 문화계발 효과를 일관되게 형성하는 대표적인 장르 연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이론가들의 초기 주장들은 미디어 장르 융합이 확장되고 다매체 다채널 이용패턴이 일상화되며 프로그램 포맷이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형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과 같은 독특한 혼종 장르의 계발효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은 다중매체 이용 및 매체 융합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혼합적 장르 이용 양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Morgan & Shanahan, 2010). 또한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분석이 더해지고 통시적인 연구방법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확실한 인과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Ⅰ 참고문헌

- 강명석 (2006.10.26). <무한도전>, 한국형 썸얼. 『한겨레 21』, 제632호.
- 김미라 (2005).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 시청이 데이트와 이성관계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353-450.
- 김수경 (2008). 진짜 현실(real reality)을 잡아먹는 가상 현실(hyper reality). 『신동아』. 2008년 8월호.
- 김수정 (2010). 글로벌 리얼리티 게임쇼에 나타난 ‘자기통치’의 문화정치: <프로젝트 런웨이>와 <도전! 슈퍼모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7-44.
-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송가 팍 잡았다. 저렴한 제작비용 · 높은 시청률 무기로 편성 붓물, 관음주의 부추긴다는 비판도 (2008. 5. 14). 『주간한국』.
- 박주연 (2005).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 한국언론재단.
- 박지훈, 류경화 (2009).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함의: 개도국의 가난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5권 2호, 142-184.
- 방송가에 불어닥친 ‘리얼리티’ 열풍 (2008. 7. 10). 『일요시사』.
- 송호근 (2006).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 옥민혜, 박동숙 (2010). ‘오락적 현실감’ 작동 방식과 상호텍스트성: 리얼버라이어티 쇼 수용연구. 『미디어, 젠더, 문화』, 14, 73-109.
- 유현석 (2008). 방송비평: 연예인 홍보로 전락한 철학없는 리얼리티-MBC ‘우리 결혼했어요’ ‘무한도전’ KBS ‘1박2일’. 『신문과 방송』, 2008년 8월호, pp. 112-115.
- 이경숙, 조경진 (2010). 오락프로그램에 차용된 리얼리티와 경쟁의 조합: <서바이버>와 <무한도전> 비교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1권 1호, 89-118.
- 이준 (2007.5.16). 리얼리티 프로그램 과연 진짜 리얼리티인가. 『오마이뉴스』.
- 주간한국 (2008.5.14).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송가 팍 잡았다. 저렴한 제작비용 · 높은 시청률 무기로 편성 붓물, 관음주의 부추긴다는 비판도.
- 차우진 (2011. 3. 14).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판타지다. [레드 기획] 명성을 기대하며 삶을 노출하는 출연자, 윤리 잃은 제작자, 남의 생을 소비하는 시청자가 만드는 욕망의 담합, 『한겨레21』, 제850호.

- 최성민 (2010). 대중 매체 텍스트의 리얼리티 문제 연구: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18권, 125-145.
- 최은경, 김승현 (2010).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현실 구성과 비판적 성찰의 이중성: 연예인 구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골드미스가 간다>의 텍스트 및 수용 분석. 『한국방송학보』, 24권 3호, 175-219.
- 홍숙영 (2009).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 202-212.
- 홍지아 (2009).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서사전략과 낭만적 사랑의 담론: <우리 결혼했어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2), 567-608.
- Austin, E. W., Roberts, D. F., & Nass, C. I. (1990). Influences of family communication on children's television-interpretation processes. *Communication Research*, 17, 545-564.
- Bahk, C. M. (2001). Drench effects of media portrayal of fatal virus disease on health locus of control beliefs. *Health Communication*, 13, 187-20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ilandzic, H., & Rossler, P. (2004). Life according to television. Implications of genre-specific cultivation effects: The gratification/cultivation model. *Communications*, 29, 295-326.
- Busselle, R. W. (2001). Television exposure, perceived realism, and exemplar accessibility in the social judgment process. *Media Psychology*, 3(1), 43-67.
- Busselle, R. W., & Greenberg, B. S. (2000). The nature of television realism judgments: A re-evaluation of their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3, 249-258.
- Calzo, J. P. and Ward, M. (2009). Media exposure and viewers'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Evidence for mainstreaming or resonanc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3(2), 280-299.
- Chiricos, T., Eschholz, S., & Gertz, M. (1997). Crime, news and fear of crime: Toward an identification of audience effects. *Social Problems*, 44, 342-357.
- Cohen, J. and Weimann, G. (2000). Cultivation revisited: Some genres have some effects on some viewers. *Communication Reports*, 13(2), 99-114.
- Custers, K. & Van den Bulck, J. (2011).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television viewing and fear of crime: Perceived personal risk and perceived ability to cope. *Poetics*, (in press).
- Dorr, A., Kovacic, P., & Doubleday, C. (1990). Age and content influences o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realism of television familie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4, 377-397.
- Eschholz, S., Blackwell, B., Gertz, M., & Chiricos, T. (2002). Race and attitudes toward the police: The effects of watching "reality" police program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327-341.
- Eschholz, S., Chiricos, T., & Gertz, M. (2003). Television and fear of crime: Program types, audience trai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Social Problems*, 50(3), 395-415.
- Ferris, A. L., Smith, S., Greenberg, B. S., & Smith, S. L. (2007). The content of reality dating shows and viewer perceptions of da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7(3), 490-510.
- Glynn, C. J., Huges, m., Reineke, J., Hardy, B., & Shanahan, J. (2007). When Oprah intervenes: Political correlates of daytime talk show 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1(2), 228-244.
- Grabe, M. E. (1999).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elevision news magazine stor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6, 155-171.

- Grabe, M. E. and Drew, D. G. (2007). "Crime cultivation: Comparisons across media genres and channel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1(1): 147-171.
- Grabe, M. E., Lang, A., & Zhao, X. (2003). News content and form: Implications for memory and audience evalu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30, 387-413.
- Hall, A. (2003). Reading realism: Audience's evaluations of the reality of media texts. *Journal of Communication*, 624-641.
- Hall, A. (2006). Viewers' perceptions of reality programs. *Communication Quarterly*, 54(2), 191-211.
- Hargreaves, D. & Tiggemann, M. (2003). The Effect of "Thin Ideal" Television Commercials on Body Dissatisfaction and Schema Activa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5), 367-373.
- Hawkins, R. P., & Pingree, S. (1981). Uniform messages and habitual viewing: Unnecessary assumptions in social reality effec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7, 291-301.
- Heath, L. & Petraitis, J. (1987). Television viewing and fear of crime: Where is the Mean World?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8(1&2), 97-123.
- Hill, A. (2005). *Reality TV: Audiences and popular factual televis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olbert, R. L., Shah, D. V., & Kwak, N. (2004). Crime-related TV viewing and endorsements of capital punishment and gun ownership.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 343-363.
- Jacobs, D. and Carmichael, J. T. (2002).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Death Penalty: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109-131.
- Kubic, K. N., & Chory, R. M. (2007). Exposure to television makeover programs and perceptions of self.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4(4), 283-291.
- Lee, C., & Niederdeppe, J. (2010). Genre-specific cultivation effects: Lagged associations between overall TV viewing, local TV news viewing, and fatalistic beliefs about cancer prevention. *Communication Research*, 1-23.
- Lunt, P. (2009). Television,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service: From value consensus to the politics of identity. (from *The end of television: Its Impact on the World (so fa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AAPSS, 625, 128-138.
- Meng, B., & Lugalambi, G. W. (2003). The perceived reality of reality-based TV programs. Pos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an Diego, CA.
- Morgan, M., & Shanahan, J. (1997). Two decades of cultivation research: An appraisal and meta-analysis. *Communication Yearbook*, 20, 1-45.
- Morgan, M., & Shanahan, J. (2010). The state of cultiv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4(2), 337-355.
- Mutz, D., & Nir, L. (2010). Not necessarily the news: Does fictional television influence real-world policy preference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3(2), 196-217.
- Nabi, R. L. (2009). Cosmetic surgery makeover programs and intentions to undergo cosmetic enhancements: A consideration of three models of media effec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5(1), 1-27.
- Nabi, R., Biely, E. N., Morgan, S. J., & Stitt, C. R. (2003). Reality-based television programming and the psychology of its appeal. *Media Psychology*, 5, 303-330.
- Niederdeppe, J., Fowler, E. F., Goldstein, K., & Pribble, J. (2010). Does local television news coverage cultivate fatalistic beliefs about cancer preven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0, 230-253.
- O'Keefe, G. J., & Reid-Nash, K. (1987). Crime news and real-world blues. *Communication Research*, 14, 147-163.
- Oliver, M. B. (1994). Portrayals of crime, race, and aggression in "reality-based" police shows: A content analysis.

-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8, 179-192.
- Oliver, M. B., & Armstrong, G. B. (1995). Predictors of viewing and enjoyment of reality-based and fictional crime show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 559-570.
- Ouellette, L. & Hay, J. (2008). *Better living through reality TV: Television and post-welfare citizenship*. Blackwell Publishing: Oxford.
- Ozer, E. M. & Bandura, A. (1990). Mechanisms governing empowerment effects: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72-486.
- Potter, W. J., & Ware, W. (1987). Traits of perpetrators and receivers of anti-social and pro-social acts on TV. *Journalism Quarterly*, 64, 382-391.
- Potter, W. J., Warren, R., Vaughan, M., Howley, K., Land, A., & Hagemeyer, J. (1997). Antisocial acts in reality programming on televis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1, 69-75.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Quick, B. (2009). The effects of viewing Grey's Anatomy on perceptions of doctors and patient satisfac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3(1), 38-55.
- Reiss, S. & Wiltz, J. (2004). Why people watch reality TV. *Media Psychology*, 6(4), 363-378.
- Romer, D., Jamieson, K. H., & Aday, S. (2003).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88-104.
- Rosler, P., & Brosius, H. (2001). Do talk shows cultivate adolescents' views of the world? A prolonged-exposure experi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1(1), 143-163.
- Segrin, C., & Nabi, R. L. (2002). Does television viewing cultivate unrealistic expectations about marriage? *Journal of Communication*, 52(2), 247-263.
- Shrum, L. J. (1999). The relationship of television viewing with attitude strength and extremity: Implications for the cultivation effect. *Media Psychology*, 1(1), 3-25.
- Shrum, L. J., Burroughs, J. E., & Rindfleisch, A. (2005). Television's cultivation of material valu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 473-479.
- Skogan, W., & Maxfield, M. (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CA: Sage.
- Woo, H., & Dominick, J. R. (2003). Acculturation, cultivation, and daytime TV talk show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1), 109-127.
- Zimbardo, P., & Boyd, J. (2008). *The Time Paradox: The New Psychology of Time That Will Change Your Life*. Free Press.

(투고일자: 2011. 11. 30, 수정일자: 2012. 1. 18, 게재확정일자: 2012. 1. 27)

ABSTRACT

Genre-specific Cultivation Effect of Reality-based TV Programs: Perceived Realism's Mediation and Fatalistic Beliefs

Eunkyung Na* · Dohyeon Kim**

Classic cultivation theory and research has been noted for its failure to capture subtle variation in effects by genre and to consider tangible and practical dependent variables. Redress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imed at extending cultivation theory frame to incorporating fatalistic attitudes and reality television viewing, especially with the mediator of perceived realism. We first replicated the original cultivation effect by showing the significant effect of overall TV viewing. Even controlling for overall TV viewing, reality-based program use showed positive association with fatalistic beliefs; furthermore, the effect remained significant, additionally controlling for news(fact) use and drama(fiction) use. In a nutshell, the cultivation effect of reality-based TV program on fatalistic beliefs turns out quite stable even after controlling other competing genres.

Keywords: Reality-based Program, Reality TV, Reality Genre, Cultivation Effect, Perceived Realism, Fatalism

*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Kookmin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Kookmin University